6·25 함께 견딘 전남대 의과대·천주교 광주대교구청 건물 문화재 지정

문화재로 등록예고된 천주교 광주대교구청 건물 전경.

근대문화유산 가치 높아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구 본관'과 '천주교 광주대교구청 본관, 헨리관, 식당동'이 문화재로 등록 예고됐다. 문화재청은 1951년 완공된 전남대 의과대학 구 본관과 1961년 대건신학교 건물로 건립된 천주교 광주대교구청 본관, 헨리관, 식당동을 문화재로 등록 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전남대 의과대학 구 본관은 광주의대 본관, 전남대 본부로 사용됐으며, 지금은 전남대 의학박물관이 들어서있다. 한국전쟁 중에도 꾸준히 건축공정이 진행됐다는 점과 모더니즘의 세련된 디자인 등이 역사적, 건축사적 측면에서 가치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천주교 광주대교구청 본관, 헤린관, 식당동은 본관을 중심으로 브레디관, 헨리관 등 4동 건물이 상호 연결된 유기적 구성이 특징이다. 다른 건물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구조로 천주교사적인 의미와 함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가 높다.

한편 문화재청은 '윤동주 친필원고'와 '이육사 친필원고'인 '편복' 등 항일유산 5건은 문화재로 등록했다. /박성천기자 skypark@

광주대우전자 근로자 집단 피부병 논란

냉장고 라인 지난해 85명중 13명 발병 이후도 같은 공정 계속 근무 산재 신청 안해 보상 못 받아 사측 "산재 신청 여부 안내했다"

대우전자 광주공장 근로자들이 집단으로 알레르기성 피부병에 걸렸으나 회사측의 대응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회사 측이 사안에 미온적으로 대처하면서 근로자들이 산업재해 신청을 하지 않아 별다른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8일 광주 근로자건강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대우전자 근로자 1명이 피부질환에 걸렸다며 이 센터를 찾아와 상담했다.

센터 조사 결과, 냉장고 생산 라인에서 근무하는 이 근로자는 접착제로 사용하는 화학물질(LOKPREP 61 AL)에 노출돼 알레르기성 피부질환에 걸렸다.

센터 측은 추가 조사를 해 2016~2017년 이 근로자와 같은 생산 라인에서 일하던 85명 중 13명이 같은 증상을 보인 것을 확인했다.

알레르기성 질환이라 일부 근로자에게만 증상이 나타났다. 근로자들은 피부가 가려워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을 겪었다고 센터 측은 전했다. 이들은 모두 개인 질병으로 알고 병원에서 개별치료를 받았으며 현재는 완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센터 측은 지난해 4월 이 같은 사실을 산업안전보건공단에 보고했다.

공단과 고용노동부는 현장 조사를 하고 회사 측에 전체 생산 라인 근로자를 상대로 건강 진단과 직업병 조사를 하라고 지시했다.

회사 측은 지난해 1월 이미 발병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자체 조사를 한다며 지난해 3월 문제 제기 때까지 근로자들을 계속해서 같은 곳에서 일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센터측은 "10명 이상 직업병이 집단 발병하면 관계기관에 신고하게 돼 있지만 회사가 이를 지키지 않은 것 아니냐"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근로자들은 아직 산재 신청도 하지 않아 별다른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광주 근로자건강센터 관계자는 "근로자들이 회사 눈치를 보느라 산재 신청을 하지 못한 것 같다"면서 "지금이라도 산재 신청을 해 인정을 받고 정부의 체계적인 관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대우전자 관계자는 "산업안전보건공단과 고용노동부의 현장 조사를 통해 내려진 건강 진단과 직업병 조사 등 지시사항을 이행했고 관련 공정도 개선했다"면서 "해당 근로자들에게도 상담하면서 산업재해 신청 여부를 안내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추가로 별다른 이상이 없어 근로자들이 산재 신청을 하지 않았을 뿐 신청을 하지 못하게 한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광주YMCA시민위 "전두환 구속 수사해야"

헬기사격 등 5·18 진실 규명 촉구

광주 시민단체가 '전두환 전 대통령을 구속해 5·18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YMCA 시민위원회(위원장 강행옥)는 최근 보도자료에서 "광주지검이 전두환에게 5·18계엄군의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비난한 혐의를 적용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시민위원회는 "전두환은 '전두환 회고록'에서 반성과 사죄는커녕 진실은폐를 넘어 광주를 다시 모욕했다"며 "새롭게 드러나는 전두환의 광주시민에 대한 헬기가격 등을 전면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그를 구속, 수사해 5·18의 진실을 규명할 것을 촉구한다"며 고 강조했다.

이어 "전두환의 5·18 광주시민 학살과 역사 왜곡에 대해 결코 용서할 수 없으며, 반인륜학살범죄행위에 대한 국내·국외법적 기준에 의해 전두환을 다시 구속 심판해야 함을 거듭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옛 도청 복원 범시도민대책위 '오월어머니상'

서유진·장헌권씨 개인상…12일 시상

옛 전남도청 복원을 위한 범시도민대책위원회가 제12회 오월어머니상 단체상을 받는다.

사단법인 오월어머니집(관장 정현애)은 오는 12일 오후 2시 오월어머니상 시상식을 열어 올해 단체·개인 부문 수상자를 각각 시상한다고 8일 밝혔다.

단체상을 받는 시·도민대책위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 최후 항전지인 옛 전남도청의 복원을 추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옛 전남도청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민주평화교류원(민평) 건물 가운데 하나다. 상무관, 경찰청 등 5·18 관련 5개 건물이 민평에 포함돼 있다.

시·도민 대책위는 옛 전남도청을 비롯한 민평 전체 건물의 원형 복원을 촉구하며 600일에 이르는 철야 농성을 이어갔다. 지난해 5월 문재인 대통령은 이 공간의 복원을 약속했다.

개인상 수상자에는 서유진 아시아인권위원회 특별대사와 장헌권 목사가 공동으로 선정됐다. 서 대사는 아시아 27개국 현지에서 5·18 정신과 가치를 전했다.

장 목사는 5·18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여러 활동을 펼쳐왔다. 오월어머니집은 민주화운동에 헌신한 단체나 개인을 해마다 시상한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뜸 05:34 해짐 19:24 달뜸 01:59 달짐 12:59

외출시 자외선 차단제 필수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다.

◇지역별 날씨 (℃)

광 주	맑음	11/23	보 성	맑음	8/19
목 포	맑음	12/18	순 천	맑음	9/21
여 수	맑음	11/18	영 광	맑음	10/20
나 주	맑음	10/22	진 도	맑음	10/18
완 도	맑음	11/19	전 주	맑음	10/22
구 례	맑음	7/23	군 산	맑음	10/21
강 진	맑음	9/20	남 원	맑음	8/22
해 남	맑음	9/19	흑 산 도	맑음	11/17
장 성	맑음	9/22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남부	앞바다	북~북동	0.5~1.0	북~북동	0.5
	먼바다	북~북동	0.5~2.0	북~북동	0.5~1.5
남해 서부	앞바다	북동~동	1.0~2.0	북동~동	1.0~2.0
	먼바다(동)	북동~동	2.0~4.0	북동~동	2.0~4.0
	먼바다(서)	북동~동	2.0~4.0	북동~동	2.0~4.0

◇물때

	밀물	썰물
목포	01:02	08:23
	15:00	20:56
여수	10:49	03:58
	22:22	16:37

◇생활지수

식중독	관심
자외선	매우높음
미세먼지	좋음

◇주간 날씨

10(목)	11(금)	12(토)	13(일)	14(월)	15(화)	16(수)
11/23	11/25	14/23	16/22	15/27	16/26	15/26